

6(2)  
-  
11

회의문자 ①



光

光자는 '빛'이나 '빛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光자는 儿(어린사람 인)자와 火(불 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光자는 사람의 머리 위에 빛이 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光자를 보면 儿자 위로 火(불 화)자가 ㄱ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사람 주위가 매우 밝게 빛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光자는 '빛'이나 '비추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빛 광

光

갑골문

光

금문

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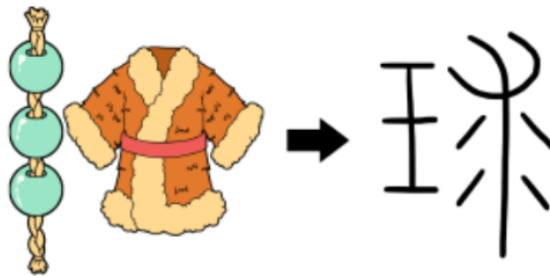
소전

光

해서

6(2)  
-  
12

형성문자 ①



球

球자는 '공'이나 '옥', '둥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球자는 玉(구슬 옥)자와 求(구할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求(구할 구)자는 '구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球자는 본래 둥글게 깎아놓은 옥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러나 지금은 '둥글다'라는 뜻만 남아있다.

공 구

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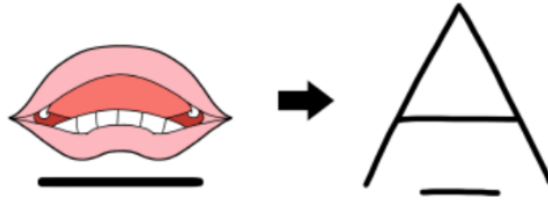
소전

球

해서

회의문자 ①

6(2)  
-  
13



今

이제 금

오늘자는 '이제'나 '오늘', '곧'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오늘자는 人(사람 인)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오늘자의 갑골문을 보면 마치 알파벳의 A자 아래에 획이 그어져 있는 듯한 A 모습이었다. 이것은 口(입 구)자를 거꾸로 뒤집어 그린 것으로 입안에 무언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전국시대 명문(銘文)에서도 오늘자는 '머금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본래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이제'나 '곧', '현재'와 같은 시간적인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口(입 구)자가 더해진 𠂔(머금을 함)자가 '머금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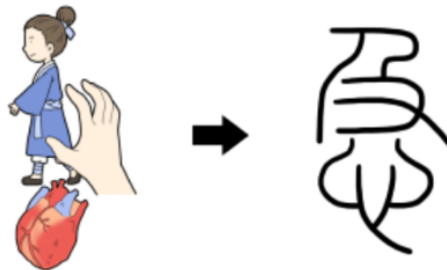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6(2)  
-  
14



急

급할 급

급자는 '급하다'나 '재촉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급자는 心(마음 심)자와 𠂔(끌 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𠂔자는 及(미칠 급)자가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급자는 心자와 及자가 결합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及자는 사람을 뒤에서 붙잡는 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급자는 이렇게 사람을 붙잡는 모습에 心자를 더한 것으로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싶은 '초조한 마음'을 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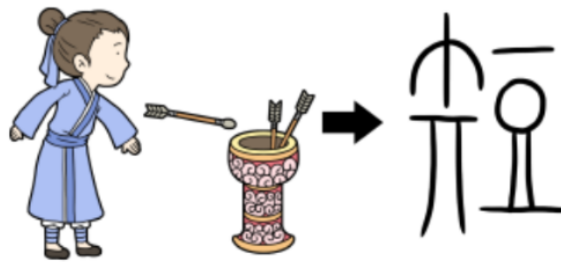
소전



해서

6(2)  
-  
15

회의문자 ①



短

짧을 단

短자는 '짧다'나 '가깝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短자는 矢(화살 시)자와 豆(콩 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短자는 '투호'라 불리는 화살 던지기 놀이에서 유래한 글자이다. 투호는 중국 한(漢)나라 때부터 시작된 놀이로 화살을 손으로 던져 통에 넣는 놀이였기 때문에 短자에 쓰인 豆자는 투호 통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투호 놀이로 화살을 던지는 것은 활로 쏘는 것보다 사정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短자는 '짧다'나 '가깝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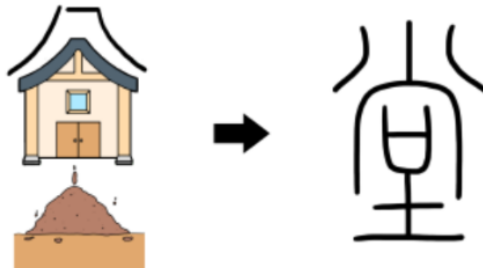
소전

短

해서

6(2)  
-  
16

회의문자 ①



堂

집 당

堂자는 '집'이나 '사랑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堂자는 土(흙 토)자와 尚(오히려 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尙자는 집 위로 무언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집'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堂자는 이렇게 집을 그린 尙자에 土자를 더한 것으로 본래의 의미는 '사각형의 토대'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각형의 토대'란 집을 짓기 위한 토대를 뜻한다. 그러나 지금의 堂자는 단순히 '집'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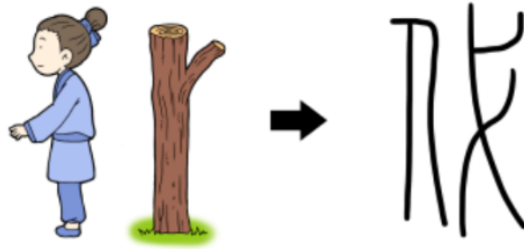
소전

堂

해서

6(2)  
-  
17

회의문자 ①



代

대신할  
대

代자는 '대신하다'나 '교체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代자는 人(사람 인)자와 弋(주살 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弋자는 짐승을 잡기 위해 줄을 묶어두던 말뚝을 그린 것으로 '주살'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代자는 이렇게 줄을 묶어두던 弋자에 人자를 결합한 것으로 사람이 끈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사람이 끈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세대(世代)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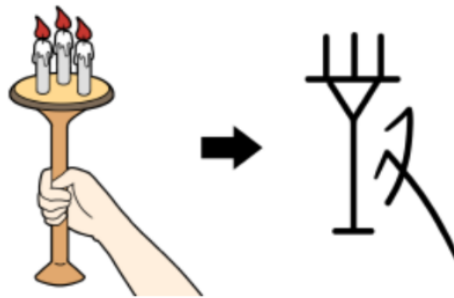
소전

代

해서

6(2)  
-  
18

회의문자 ①



對

대할/  
대답할  
대

對자는 '대하다'나 '마주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對자는 𠂇(풀무성할 착)자와 寸(마디 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𠂇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촛대로 응용되었다. 對자의 갑골문을 보면 여러 개의 초가 꽃힌 긴 촛대를 들고 있는 𠂇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누군가를 마주하기 위해 불을 밝힌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對자는 불을 밝혀 누군가를 마주한다는 의미에서 '대하다'나 '마주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對

갑골문

對

금문

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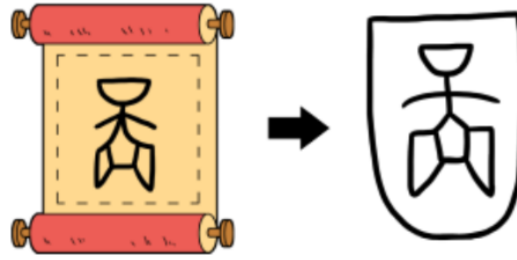
소전

對

해서

6(2)  
-  
19

회의문자 ①



圖

그림 도

圖자는 '그림'이나 '계산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圖자는 口(에운담 위)자와 鄙(더러울 비)자의 생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鄙자는 중국의 변방 지역을 뜻하는 글자로 '더럽다'나 '변방 지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圖자는 이렇게 변방 지역을 뜻하는 鄙자에 口자를 더한 것으로 '지도'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圖자는 변방 지역까지 그려진 '지도'라는 뜻이다. 전쟁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圖자에는 '지도'라는 뜻 외에도 '짜하다'나 '계산하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圖

금문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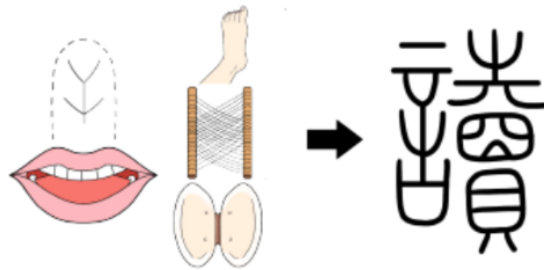
소전

圖

해서

6(2)  
-  
20

회의문자 ①



讀

읽을 독/  
구절 두

讀자는 '읽다'나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讀자는 言(말씀 언)자와 賣(팔 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賣자는 물건을 파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팔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물건을 팔고 나면 얼마를 벌었는지 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팔다'라는 뜻의 賣자에 言자가 결합한 讀자는 물건을 팔아(賣) 돈을 센다(言)는 것을 뜻했었다. 讀자에는 아직도 '계산하다'나 '세다'라는 뜻이 남아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讀자는 돈을 세며 중얼거린다는 뜻으로 쓰였었지만, 후에 이러한 뜻이 확대되어 '읽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讀

소전

讀

해서